

제 21 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집회결과

건 명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1. 25 - 12. 24					
의 결 일 시	1992. 12. 24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1부. 끝						
1 9 9 2 년 12 월 26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이상유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명

쌀 수입 개방 반대 에 관한 결 의 문

오랜 역사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져 우리 민족의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농산물의(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조차 쌀 시장 개방을 피할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는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호·환경보존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우리 농가의 주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농업생산액·재배면적·생산면에서 단연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구미시의회는 제2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수 없으며 UR 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이용과 보전농기 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구미시 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1992. 12. 24

구 미 시 의 회 의 원 일 동